

17대 총여학생회 평가

들어가며

범국민 반미항전의 기치 아래 살아온 2000년. 17대 총여학생회는 선거를 제때하지 못하고 보궐선거로 가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99년 12월에 17대 총여학생회 준비위원회를 세워내고 준비위원장을 구심으로 2000년을 민족경기의 선봉에서 힘차게 투쟁하였다.

6월 13일~15일에 열렸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국통일의 정세가 급변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체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였다. 우리 여성들도 통일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어느해보다도 통일의 주체로 일떠서 왔던 한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천년의 시작, 200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해 보고 조국통일의 대로가 활짝 열린 2001년에 민족경기 총여학생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선거시기

17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겠다는 결의로 조직생활을 간고하게 해나갔다.

학우들을 헌신적으로 만나갔다.

골간체계를 세우고 여학우들과 함께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참모와 운동원을 꾸렸다.

선거를 투쟁으로 만들어 갔다.

학기초의 학원자주화투쟁과 정치정세투쟁의 선봉에서 투쟁하였다.

조직사상생활

3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투쟁과 사업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업을 펼치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원인은 시기별로 장기적이고 우리단위에 맞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이유 한가지와 결의한 내용을 꼭 지키겠다는 주체들의 각오가 부족하였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단위골간체계를 건설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선거시기 이후에는 정세토론은 간간히 하였으나, 여성에 대한 교양이나 여학운동을 고민하는 교양이 없었으며 일꾼으로서 어떠한가에 대한 교양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중사업

가장 큰 성과점은 대중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했다. 사업안에서는 많은 성과를 남겼으나 연속선상에서의 후속작업을 못함으로서 성과를 이어가지 못했다.

과제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

사람을 만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일상사업을 잘 진행해야 한다.

골간체계를 건설,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민족경기 17대 총여학생회